

광주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 힘 모은다

특구 지정 앞두고 포럼...국회·의료·기업·기관 등 100여명 참석 광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동향 공유·규제특구 발전방안 모색

광주시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해 국회·의료·기업·기관 등과 힘을 모으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대학교병원,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22일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에서 '광주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광주시의 규제자유특구 비전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현실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정진욱·전진숙 국회의원, 정진 전남대학교병원장, 윤택림 전남대병원 융합의료기기지원센터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 조우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특수사업 참여기업 관계자 등 국회·의료·기업·기관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기승정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의 '광주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윤택림 센터장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동향', 박소라 원장의 '첨단재생의료 국내 활성화 방안', 김장호 (주)나노바이오시스템 대표의 '첨단재생의료 조직공학·융합치료 연구개발 현황'을 주제로 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기승정 원장, 박소라 원

장, 김장호 대표, 이재중 (주)박셀바이오 대표, 류강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장이 참여해 광주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의 필요성,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타 특구와의 연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광주시는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제10차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사업에서 '생체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사업'을 제출해 1차 선정됐다. 광주시는 현재 사업을 구체화하는 특구 세부계획서를 기획 중이며, 중기부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광주시가 계획 중인 첨단재생의료 특구는 광주 전역(동구 대학병원지역, 서구 병원밀집지역,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90만평 규모이며, 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첨단재생의료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는 광주시의 주력사업으로 산업 생태계 확장을 통한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환자 치료권 확대 등 광주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국회, 의료계, 산업계 등과 힘을 모아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ucky@kwangju.co.kr



매월호수공원, 수초 제거
광주시 서구청 산림과 관계자가 지난 22일 서구 매월호수공원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수초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윤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벼멸구 농업재해 첫 인정...전남도, 피해 농가 154억원 지급

30% 이상 피해 농가 이자 감면도

전남도가 벼 재배농가 중 지난 9월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지원금 154억원을 지급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집중호우로 벼 7409ha가 쓰러짐 등의 피해가, 8~9월 폭염(고온)으로 9261ha(벼 재배면적 14만8000ha의 6.3%)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벼멸구 피해 9601농가에 농약대 91억 4000만원(ha당 100만원), 대파대 2억4000만원(ha당 200만원), 생계비 1억8000만원(피해율 50% 이상) 등 총 95억6000만원의 복구비를 지급

한다.

해남군이 27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복구비를 받게 되며, 장흥군(10.6억원), 고흥군(9.5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또 9월 19~21일 집중호우로 벼 쓰러짐 피해를 입은 6344농가에 농약대 58억5000만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피해율 30~49% 1년·50% 이상 2년) 등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는 올해 벼멸구 피해가 과거와 달리 기하급수로 늘고 폭우 피해까지 겹쳐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난 9월 전국 최초 권위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 등 9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10월 벼멸구 피해를 최초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벼멸구 피해가 최초 농업재해로 인정돼 복구비를 지원받아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품목별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농업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전국서 벤치마킹

정책토론회서 우수사례 발표...아동정서 안정·양육부담 경감 등 효과

광주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이 전국 모범사례로 떠오르며 타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손자녀돌봄수당 지원제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광주시의 사업 추진 성과 등을 발표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다자녀가정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특새돌봄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20만원/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 평균 200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광주시는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시설돌봄(어린이집)'보다는 '가정돌봄'을 희망하는 부모의 수요가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정책을 마련했다.

제도 시행 결과,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이 아동정서 안정은 물론 시설돌봄의 한계 극복, 부모 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등에 기여하며 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맞벌이가정의 양육공백을 메우는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등도 협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광주시의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배우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경기도를 중심으로 손자녀돌봄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했으며, 경남도와 부산시 등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이 전국 대표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며, 맞벌이·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안정성과 친밀감을 주는 '가족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국제 교류 확대...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기대

중국 칭다오시와 우호도시 협정 자매결연·우호협력도시 25곳

광주시가 지역 경제·관광 산업 등의 외연 확대를 목표로 중국 지방정부와 7년 만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 역량을 넓혀가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청에서 칭다오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광주시가 중국 지방도시와 새로 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은 2017년 장수성 연청시와 업무협정(MOU)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협정으로 광주시

와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한 지방정부는 자매결연 도시 5개국 7개도시, 우호협력도시 10개국 18개 도시로 늘어났다.

광주시와 칭다오시는 이번 협정을 통해 경제·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칭다오시는 인구 1037만명이 거주하는 산둥성 최대 공업도시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과 가전·신에너지 등 산업이 발달돼 있어 광주시 기업들과의 활발한 경제교류 등이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다, 다수의 항공편도 취항해 문화·관광·교육·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발한 민·관 교류가 가능하

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협정식에서 "우호도시 체결을 통해 광주와 칭다오시가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로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의 물꼬를 터나가기 기대한다"며 "양 도시가 공동 관심사와 미래 비전 등에서 폭넓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상생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오엔 칭다오시 부시장은 "칭다오와 광주시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앞으로 양 시 관계자 및 시민들의 관계 또한 더욱 친밀해지기를 바란다"며 "양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음악학부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www.kwangshin.ac.kr